

西洋音樂教育의 導入過程에 관한 史的 考察

金 聖 基

(本學會 理事・京東高校 教師)

目 次	
I. 序 論	3. 西洋音樂의 導入
II. 本 論	4. 音樂教育의 定立
1. 開化期의 新文化	III. 結 論
2. 新教育의 歷史的 背景	

I. 緒 論

19世紀末 우리 나라 開化期에 西洋文物의 導入으로 西洋音樂이 이땅에 傳來된지 한 世紀가 된 때를 즈음하여 音樂教育 導入의 歷史的 背景 및 過程에 關하여 考察하고자 하는 本稿에서는 1884年 甲申政變으로부터 1910年 <調陽俱樂部>(朝鮮正樂傳習所의 前身)의 設立까지를 音樂教育의 導入時間으로 設定하며, 本稿의 音樂教育이라 함은 西洋音樂教育을 뜻함을 明記하여 둔다.

1953年 航海中 颱風으로 濟州島에 漂着하여 14年間 抑留되었다가 脫出한 和蘭人 하멜(Hendrik, Hamel)의 「朝鮮漂流記」와 「朝鮮國記」에 依하여 西歐諸國에 朝鮮에 關한 知識이 처음으로 傳파되어 歐美列強의 接近을 맞게 되면서 朝鮮은 外交關係의 主軸을 이루던 中國에서부터 점차로 벗어나 日本 및 歐美諸國과의 修交가 始作되므로 近代文明을 接하게 된다.

東洋에서 中國과 日本이 西洋의 技術을 받아들인데 比하여 朝鮮은 뒤늦게 軍事的 技術대신 精神的 支柱로서 基督教라는 새로운 宗教를 택하는 때 지나지 않는다.

시리아 文明이 헬레니즘의 압도적 支配 밑에서 基督教라는 새로운 土着宗教를 찾아냈듯이 混亂과 疲弊된 國內의 政勢와 國內 宗教의 墮落과 함께 亡國의 虛脫속에서 찾아낸 朝鮮에 있어서의 基督教은 단순한 宗教史로서의 問題만이 아니라 韓國의 近代史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新音樂史의 起源을 天主教의 流入으로 보고 그 教理의 傳敎와 함께 西洋의 音樂도 紹介되었으리라 假定할 수 있으나 所謂 近代教育 理念 樹立에 있어서의 音樂教育과 音樂文化를 이야기 할 때에는 아무래도 改新敎의 傳來를 그 契機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西洋音樂의 始作인 讚頌歌가 西歐의 경우처럼 우리 作曲者에 依하여 創作된 創造行爲로서 始作되지는 못했으나 享受하는 측의 追加的 創造行爲를 통하여 群衆속에서 피어오른 韓國人의 生活의 한 形成過程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하나의 事實만으로도 韓國에 있어서의 西洋音樂史의 出發을 讚頌歌에서 始作하는 意義는 充分하다 하겠다.

音樂教育의 導入過程을 1910년까지로 設定한 것은 이 期間 동안에 西洋音樂이 1885年の 벽두를 장식하면서 輸入되어 1895년에는 그 나뉠대로 整地를 끝내고 1896年에서 1910년까지는 音樂教育의 꽃이 피기 始作하였으며 導入過程이라는 時間性이 갖는 限定은 例컨대 學校가 設立되고, 그 學校에서 音樂이 다루어지고 民族的 自覺意識에 눈뜬 많은 民衆이 愛國歌를 부르고 近代史에 있어서 西洋의 樂器를 大量으로 輸入한 契機가 된 軍樂隊의 創設, 그리고 音樂이 各級學校의 教科目으로 채택되며 아울러 音樂教科書가 發刊되었으며, 音樂教育의 긴급한 必要性에 依하여 設立을 본 朝鮮正樂傳習所의 母體인 調陽俱樂部가 1910年에 設立되었기 때문에 그 期間으로 設定한 것이다.

II. 本 論

1. 開化期의 新文化

1) 西洋文化의 導入

우리 나라가 西洋을 認識하기 始作한 것은 17世紀 벽두부터의 일이다. 壬辰倭亂 후 宣祖 36年(1603年)에 中國에 使臣으로 갔던 李光庭이 「歌羅巴與地圖」를 보내왔으며, 한편 宣祖 15年(1582年) 馬里伊가 漂流했다가 곧 中國으로 송환되었고, 壬辰倭亂 때 倭軍을 따라 왔던 神父 세스페데스(G. Cespedes)가 있기는 했으나 實際적으로 韓國에 西洋文化의 어떤 影響을 주지는 못하였다.

西洋人으로 韓國에 直接 그 文物을 紹介했다면 仁祖 5年(1627年) 南西海岸에 漂着한 和蘭人 벨테브레에(Jan Janse Weltevree-韓國名 朴燕 또는 朴淵)와 孝宗 4年(1653年)에 濟州島에 漂流했다가 14年間 억류 후 탈출하여 「朝鮮漂海記」와 「朝鮮國記」를 著術하여 西歐에 朝鮮에 관한 知識을 傳播한 和蘭人 하멜(Hendrik Hamel)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¹⁾

이처럼 韓國은 南北으로 西洋文物에 접촉했으나 漂流되어 온 南으로부터의 접촉에서는 별다른 成果를 얻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北으로부터 輸入한 것들이 韓國의 近代化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때까지 無視해왔던 滿洲族 清나라에 依해서였다.

丙子胡亂을 겪은 韓國이 宗主國 明나라에서 視野를 넓혔고 특히 淸國이 西洋文明을 받아들여 크게 번영함에 따라 韓國은 스스로 明・淸으로부터 새로운 思潮와 文物을 輸入했던 것이다. 이어서 仁祖 22年(1644年)에는 丙子胡亂으로 淸에 인질로 잡혀갔던 昭顯世子가 獨逸 神父 湯若望(Joanes Adam Schall Von Bell)과 親交를 맺은 뒤 本國으로 放還될 때 天文,

1) 李有善, 「韓國洋樂百年史」(中央大 出版局, 1976), p.16.

算學, 西敎의 서적 多數와 與地球, 天主像 등을 기증받아 가지고 돌아왔으니 이것이 韓國사람에 依한 공식적 天主教 輸入의 始初라 하겠다.²⁾

그 밖에 李晬光이 壬辰倭亂을 前後하여 北京에 세 차례나 왕복하면서 西洋과 함께 天主教를 韓國에 紹介하였고 수많은 實學의 선구자들이 天主教와 함께 西洋의 新學問을 이 나라에 輸入하였다.

처음에 學問으로 들어왔던 西學은 점차 宗教로 받아들여져 이 땅에 비로소 西敎(天主教)의 씨를 뿌리기에 이르렀으니, 韓國에 있어서의 西洋文化의 導入은 宗教와 함께 宣敎師나 外國人에 依하여 피동적으로 受容된 것이 아니라 自發적으로 나서서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의 西洋文化와 宗教는 流入이 아니라 導入이었던 것이다.

1780年 淸國에 使節로 다녀온 燕岩 朴趾源의 「熱河日記」에 나타난 「風琴記」는 그가 中國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 이미 輸入되어 있던 西洋의 文物을 살피고 아울러 그곳 文人들과도 사귀어 見聞을 새롭게 하는 한편 天主敎會堂에 建立되어 있던 이 놀라운 西洋의 樂器에 對하여 至대한 關心을 가졌다고 하는 事實은 그가 西洋의 音樂을 韓國에 紹介한 最初의 사람이 되게 한 動機라고 하겠다.³⁾

大院君 集權中에 야기된 丙寅洋擾, 辛未洋擾 등의 外勢와의 衝突事件은 ‘洋夷 두려울 것 없다’는 엄청난 錯覺으로 이 나라 外交史의 進路를 가로막는 過誤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錯雜한 與件들은 大院君의 下野를 불가피한 事態로 만들었으니 大院君의 失權을 계기로 開化의 意慾은 具體化하여 갔고 우선 1875년에 發生한 日本군함 雲揚號 事件 다음 해인 1876년에는 日本으로부터 丙子修好條約 締結을 強要받았으며⁴⁾ 우리보다 앞서 1854년에 이미 歐美 여러 나라와 通商條約을 맺은 日本은 또한 明治維新이라는 政治體制의 改革 등으로 開化가 앞섰으며 日本과의 通商條約에 依한 仁川 및 元山港의 開港이 西洋의 文化가 正式으로 輸入되기 始作한 계기로 發展하여 우리 나라 開化運動의 첫 試圖인 甲申政變이 日本의 힘을 빌게 된 실마리가 되어 그 후 굳게 지켜 固執했던 鎖國의 門이 열리자 歐美 여러 나라의 修交의 要請은 정신차릴 수 없이 밀어닥쳐 1882년의 美國과의 修好條約을 筆頭로 英, 獨, 佛, 伊와도 같은 條約을 맺으므로 ‘隱者의 나라’의 베일을 벗고 國際班列에 參席하게 되었으며 韓美修好條約 締結 3年後인 1885年 4월에 改新敎의 宣敎師인 아펜셀러(Henry G. Appenzeller) 夫妻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來韓과 1900年の 에케르트(Franz Eckert)에 依한 軍樂隊의 創設을 이룩하게 되었으니, 丙子修好條約을 계기로 文호가 開放되고, 韓美修好通商條約으로 宣敎師의 活動이 開始되었으며, 各國의 軍함들의 入港으로 40~50名의 軍樂隊의 장엄한 行進曲의 演奏 影響 등으로 軍樂隊의 創設에 자극이 되었으니 위에 열거한 與件들로 우리 나라의 音樂敎育이 그 胎動을 보게 된 것은 近 한 世紀 前의 西洋文化의 導入과 그 때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다.

2) 李宥善, 前揭書, p.17.

3) 閔元得, 開化期의 音樂敎育(梨大 記念論文集, 1966), pp.10~1.

4) 閔元得, 前揭書, p.11.

2) 基督教의 傳來

(A) 天主教의 導入

17世紀初 이래 朝鮮의 知識人들은 中國을 거쳐 들어오는 西洋의 文物과 思想에 接하여 그들의 知識世界를 擴大시키고 있었다.

新宗教로서 크게 教勢를 펴뜨린 天主教가 朝鮮에 처음 傳來되기 始作된 것은 17世紀初의 일이었다. 이 무렵 中國에서는 이미 ‘西勢東漸’의 一還으로 西洋人 宣教師들이 當到하여 天主教와 西洋文物을 紹介하고 있었으며 朝鮮의 知識人들은 北京使行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다.

宣祖 27年(1594年) 壬辰倭亂 때 倭軍을 따라왔던 포르투갈 神父 세스케데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小西行長의 引영 속에서 宣敎하러 했으나 信者를 얻지 못했으며 宣祖 41年(1608年) 天主教가 傳來되었다는 記錄도 있으나 具體의 事實은 없다. 다만 光海君 2年(1610年)에 許筠이 使行의 一員으로 北京에 갔을 때 「偈 12章」(12種의 訴論文)을 얻어 왔다는 것이 最初의 事實로 가장 뚜렷하다. 그리고 바로 直後인 光海君 12年(1612年)에 開板된 李睟光의 「芝峰類說」은 맛배오 릿치著 「天主實義」를 最初로 紹介하고 있으니, 이상과 같은 事件 등이 韓國사람에 의한 공식적인 天主教 輸入의 始初라 하겠다.⁵⁾

天主教가 政治問題의 하나로 대두하게 된 것은 正祖代에 이르러 一部 知識層에서 從來의 慎重한 研究 態度를 버리고 信仰으로 擇하여 實踐運動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 主要 人物들은 李穡, 權哲身, 權日身 兄弟, 李家煥, 丁若銓, 丁若鍾, 丁若鏞 兄弟 그리고 李承薰 등이 있다.

敎理 研究에 힘써오던 그들이 본격적으로 實踐運動에 나섰던 것은 正祖 7年(1783年)에 李承薰이 父親(使行의 耆狀官)을 따라 北京에 가서 洗禮(顔洗)를 받고 돌아온 것을 계기로 하여서이다.

天主教의 敎理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여러 百年 동안 갖은 苦難과 迫害를 받아가면서도 그 教勢는 끈덕지게 뻗어 나가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開化運動과 文化發展에 공헌한 바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新音樂敎育을 論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新音樂史의 起源을 天主教의 流入으로 보고 그 敎理의 頒布와 함께 西洋의 音樂도 紹介되었을 것이라는 假定을 設定할 수는 있겠지만 소위 近代 敎育理念 樹立에 있어서의 音樂敎育, 특히 音樂文化를 論할 때에는 아무래도 改新敎의 傳來를 그 계기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⁶⁾

(B) 改新敎의 導入

1882年 4月 6日 濟物浦 海岸에 帳幕을 꾸며 條約調印 式場을 만들고 거기에 朝鮮, 美國의 關係 官員이 會同한 가운데 韓美修好通商條約 條約文에 署名 調印을 하고 禮砲를 울리게 되면서 兩國間의 外交關係가 成立되자 美國의 宣敎師들의 正式 入國을 보나 이보다 앞서 1627年에 木浦 沿岸에 漂着한 벨테브레에 等 和蘭 船員들이 平生을 이 나라에서 살면서 基督教 信者로서 적지 않은 感化를 주었으며 그 후 1653年 前述한 바 있는 和蘭人 하멜 等

5) 韓榮國, 「韓國史大系」 6卷(三珍社, 1974), p.132.

6) 閔元得, 前揭書, p.11.

36名이 濟州島 沿岸에 漂着하여 그들도 改新敎의 信者로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宗教的, 文化的 影響을 끼친 바 적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이들의 來到는 意識的인 宣敎를 目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 改新敎의 呼吸을 뿌린 最初의 西洋人들이라고 하는 點에서 記憶할 만한 것이다.

新敎의 牧師 資格으로 宣敎의 意慾을 가지고 最初로 우리 땅을 밟은 사람은 1832년에 忠清道 海岸에 上陸한 쿠츠라프(Carl Gutzlaff)이다. 그는 약 40日間 그 地方에 머물면서 福音을 傳하였을 뿐만 아니라 韓國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주기도문을 번역하였으며, 1865年 英國이 宣敎師로 中國에 派遣되어 있던 토마스(Rovert J. Thomas) 牧師가 黃海道 海岸에 2個月余 머물면서 福音의 씨를 뿌리다가 事情이 여의치 않아 中國으로 되돌아가 다음 해인 1866년에 쉬만(Schermann)號를 타고 大同江으로 올라왔다가 무참히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⁷⁾

大院君의 鎖國政策은 이 쉬만號 擊破事件으로 말미암아 改新敎의 最初의 殉敎者를 내었던 것이다.

大院君의 鎖國政策과 西敎彈壓으로 國內 傳道가 不可能하게 되므로 國外에서 接觸이 試圖되었으나 滿洲에 와 있던 루스(John Ross), 매킨타이어(J. Macintyre) 두 牧師로부터 傳道를 받아 韓國 最初의 洗禮敎人 徐相菴, 白鴻章, 李成夏, 金鎮基 등 네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⁸⁾

上記한 바와 같이 改新敎의 바탕이 싹이 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不毛地와 같은 이 땅에 韓美修交로 宣敎의 自由가 許容되자 1883年 美國 宣敎師로부터 洗禮를 받고 이듬해 母태복음을 韓譯 出版한 李樹廷은 1884年 4月에서 12月 사이에 수차에 걸쳐 朝鮮안에서 펼 傳道의 緊迫性과 必要性을 <世界宣敎評論(The Missionary Review of World)>과 外國 宣敎師에게 <韓國의 事情(The Condition of Korea)>라는 題目으로 紹介하게 되어 이 글을 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宣敎師를 自願하게 되어 赴任 途中 日本에 들러 李樹廷과 만나 韓國語를 배우고 韓國語로 번역된 <母태복음서>를 들고 來韓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最初의 韓國에 來韓한 外國人 宣敎師였던 것이다.⁹⁾

이미 뿌리를 박고 있던 天主教를 제쳐 놓고 빠른 速度로 그 敎勢가 全國적으로 擴張된 데에는 물론 開拓 宣敎師들의 희생적인 精神과 이를 뒷받침 하던 初期 敎人들의 熱熱한 信仰心과 傳道熱에 그 重要的 原因이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經視할 수 없는 理由는 天主教와 달리 讚頌歌를 그 敎理 傳達의 媒介物로 가지고 있는 點이라 하겠다.

元來 讚頌歌라고 하는 것은 改新敎의 各 敎派가 자기 제나름으로 지어 부르는 宗教歌曲을 말하는 것이다. 天主教에도 宗教歌曲이 없는 것이 아니고, 音樂史上 中世紀의 모든 音樂活動은 이 敎會를 中心으로 隆盛하였으나 天主教의 聖歌가 訓練받은 聖歌隊만이 부르는 音樂으로서 보다는 禮拜儀式(Missa)의 一部로서 一般 會衆이나 民間 音樂界와는 別로 關連을 맺지 않은 疎遠한 것이었다는 點에 비하여 改新敎의 讚頌歌는 會衆이 함께 부름으로 하여 禮拜儀式에 參禮하는 것으로 讚頌歌나 敎會에서 演奏되는 音樂은 누구에게나 親近感을 주며 이로 인한 音樂의 感化는 至大한 것으로 韓國 洋樂의 始初라 하겠다.¹⁰⁾

7) 閔元得, 開化期の 音樂敎育(柳德熙, 世界音樂敎育史, 學文社, 1783. 再引用, p.412).

8) 閔元得, 前掲書, p.14.

9) 吳允台, 日韓キリスト敎 交流史(李宥善, 韓國洋樂百年史 再引用, p.14).

10) 柳德熙, 前掲書, pp.413~4.

2. 新教育의 歷史的 背景

1) 甲午更張과 新教育

朝鮮王朝 初期에 확립된 儒敎的이고, 封建的인 社會秩序는 지속될 수 없었다. 이러한 傾向은 倭亂과 胡亂을 겪는 동안 深化되어 政治紀綱이 문란해졌음은 勿論, 經濟的 破綻으로 國家 財政이 궁핍해지고 國民 生活이 도탄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點이 王朝의 傳統的 社會秩序의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 重要한 原因이다.¹¹⁾

19世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歐美 勢力의 東洋 進出 추세에 따라 中國과 日本의 文호는 개방되었고 뒤이어 1876年 ‘隱遁의 나라’ 朝鮮도 日本에 依하여 文호를 開放해야만 되었다.

韓美修好條約이 체결된 뒤를 이어 유럽諸國과 차례로 國交를 맺어 폐쇄 사회가 開放體制로 急轉하게 되자 國內에서는 위기 의식이 高潮되는 한편 開化思想이 대두하게 되었다.

일단 國際關係가 開放體制로 전환하게 되자 自意건 他意건 국제정세 變化에 對應하는 새로운 체제 整備가 必要하게 되었으며 이 必要에 부응하여 1884年 開化派가 主導하는 위로부터의 甲申政變이 일어났으며, 10年 後인 1894년에는 밑으로부터의 革命이라 말할 수 있는 東學農民革命이 일어났다.

東學農民革命을 계기로 朝鮮에 軍隊를 派遣한 日本은 당시 朝鮮의 對內外的인 必要에 따라 強調되고 있던 內政改革의 時代的 要求를 朝鮮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전구호로 活用했다. 즉 東學亂과 같은 內亂을 근절하지 못하면 東洋平和를 유지할 수 없다고 主張했으며 이러한 선전 구호하에 日本은 朝鮮內에서 淸國勢力을 밀어내고 朝鮮의 植民地化를 촉진하고자 朝鮮의 內政改革을 적극 추진하게 되니 이를 흔히 甲午更張 또는 甲午改革이라고 한다.¹²⁾

甲午改革은 朝鮮의 낡은 體制를 타파하고 朝鮮을 近代國家體制로 整備한다는 明分으로 日本政府가 強行한 他律的 近代化 改革이요, 처음부터 朝鮮政府의 要求에 依한 改革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改革은 一年만에 內外的 政治적 변동에 따라 중단되었고 그 內政改革이 실제로 실시된 것은 적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 朝鮮社會 發展에 끼친 影響은 적지 않았던 것이며 따라서 甲午改革 문제는 韓國近代史 發展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問題로 제기되는 것이다.

從來의 教育制度는 最高 教育機關인 成均館이 中央에 있고 中等教育機關으로 역시 중앙에 四學과 地方에 鄉校가 있었으며, 부락마다 있다시피한 書堂이 初等教育機關이었다. 이는 現在 學制와 같이 系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獨立된 教育機關으로 存在하였다.¹³⁾

한편 1884年 甲申政變의 실패로 金弘集과 朴泳孝의 聯立內閣이 탄생되어 外勢에 依한 近代化의 作業은 우선 官制의 改革이 이루어져서 宮內와 議政의 二府가 서로 內務, 外務, 度支, 軍務, 法務, 學務, 工務, 農商務의 여덟 衛門이 國務 全般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內政改

11) 元裕漢, 尹炳奭 共著, 「韓國史大系」 7卷(三珍社, 1973), p.81.

12) 元裕漢, 尹炳奭 共著, 前掲書, p.82.

13) 上掲書, p.183.

革面에서 가장 실적이 없었던 것은 教育制度로 지적되고 있다.

이 改革 以前에 이미 당시 서양 여러 나라와의 外交關係가 빈번해지는 사정에 비추어 外國語 教育의 必要性에 따라 1883年 8월에 朝鮮政府의 外交顧問으로 있던 독일인 뮐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t)가 <同文學>을 設立하여 주로 영어를 가르쳤으며 外國語 教育의 뒤를 이어 西洋醫學에 대한 教育으로 國王의 信任을 얻은 美國 北長老教 宣教師인 美國人 醫師 알렌(H. N. Allen)이 1885年 國立病院인 廣惠院(뒷날 濟衆院)을 열고 이듬해 4월에 助手 養成을 目的으로 醫學教育을 시작하였다. 이 때 알렌과 같은 長老教 宣教師이며 醫師로 왔던 헤론(J. H. Heron)이 醫學科目을, 그리고 언더우드는 化學과 物理를 가르쳤다.¹⁴⁾

이상은 우리 나라가 現代式 方法을 빌어 教育을 實施한 最初의 試圖였으나 그것이 곧 現代式 學校의 設立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韓國에서 一般教育을 目的으로 하는 現代式 學校는 美國 宣教師들이 傳道事業으로 教育에 着手하여 세운 培材學堂과 梨花學堂 그리고 政府가 美國으로부터 教師를 초빙하여 設立한 育英公院이 嚆矢가 되는 것이다.

培材學堂은 1885年 6月 仁川에 上陸한 美國 監理敎에서 派遣한 宣教師 아펜셀러(Henry G. Appenzeller)에 의하여 그해 8月 서소문동에 집 한 채를 사서 學校를 開校하였으며(培材學堂의 設立 年代가 1886年이라는 說도 있음), 美國 監理敎의 女子 宣教師 스크랜터 부인(Mrs. M. F. Scranton)은 1886年 5월에 學生 한 명으로 學校를 開校하였으니 이것이 梨花學堂인 것이다. 같은 1886년에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敎新學校를, 앨러스(Miss A. J. Allers)는 1887년에 貞信女學校를 設立하였으니 1885년부터 1909年 사이에 美南北監理會, 南北長老會, 캐나다 聯合敎, 호주長老會 등이 設立한 宣敎系 學校가 40個校나 되며 韓美修好條約 締結後 報聘大使로 美國에 갔던 閔泳翊의 歸國으로 美國 文物의 優秀性을 報告받은 高宗은 美國政府에 敎師 추천을 의뢰하여 1886年 7월에 당시 유니온 神學校 學生이던 길모어(G. W. Gilmore), 벙커어(D. A. Bunker), 헐버트(H. B. Hulbert) 3名の 來韓으로 그해 7월에 育英公院을 開院하게 되었다.¹⁵⁾ 1883年の 通辨學校로부터 1908년까지 官・私立學校 21個校의 設立을 보게 되었으니 22年間に 京鄕 各地에 雨後竹筍처럼 60餘 學校가 設立된 것은 모두 開化에 따른 新敎育의 時急함을 認識한 것으로 傳統의인 儒敎教育을 벗어난 近代 新敎育의 새로운 章의 展開였던 것이다.

2) 宣敎와 敎育

(A) 宣 敎

16世紀 末葉 以後 여러 해에 걸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참극을 겪은 政府는 鎖國主義 政策을 取하게 되었고 17・18 및 19世紀를 통하여 이를 固守하고 힘써 外國의 간섭을 피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鎖國政策도 19世紀 末葉에 이르러 外部의으로는 世界 列強의 海外 進出과 通商 및 文化交流의 거센 물결에 부딪치게 되었고, 内部의으로는 당시 斥和政策을 固守하던 大院君의 실각과 더불어 수세기에 걸친 鎖國主義는 1876年 2月の 日本과의 修好條約 調印을 비롯하여 1882年 3月 美國과 그리고 英國, 獨逸, 이태리 그리고 1886年

14) 元裕漢, 尹炳奭 共著, 前掲書, p.183.

15) 元裕漢, 尹炳奭 共著, 前掲書, pp.186~9

5月 불란서와의 條約으로 終熄되고 西歐 列強과 修交하게 되니 文호개방이 막 시작되어 새 文化의 導入과 開化運動이 胎動하던 때가 바로 이 때이다.

國交가 正式으로 맺어지고 이 땅에 歐美 各國의 公使館이 設置되자 여태까지 陰性的으로 布教하여 오던 基督教 傳道는 表面化되어 各國에서 앞을 다투어 宣敎事業에 나서게 된다.

그 중 가장 積極的으로 宣敎事業을 벌인 것이 美國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우리 나라에서 傳道만을 가지고는 宣敎가 어렵다는 사실에 着眼하여 民心을 잡을 수 있는 慈善事業과 醫療事業 및 敎育事業 등을 통하여 宣敎를 시작한 것이 美國이 이 나라에서 新敎 宣敎에 成功을 거둔 關鍵이라고 하겠다.

宣敎의 類型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그 하나는 19世紀 以前의 植民의 宣敎(Colonial Mission)요, 또 하나는 敬虔主義 및 信仰 復興에 基因하여 植民地 限界를 超越한 世界的 宣敎(Universal Mission)이다.

1885年頃 우리 나라에 손을 뻗친 美國 宣敎의 경우는 後者에 屬하는 것으로 政治權力과 結付되지 않은 宣敎로서 文化程度가 낮고 近代의 運營 組織에 미숙한 것을 깨우치고 높이기 위하여 또는 宣敎의 手段으로 學校를 設立하여 敎育과 傳道를 並行하는 方法을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敎育事業을 並行하는 宣敎師이고, 스크랜틴이나 알렌은 醫療事業을 통한 宣敎者들인 것이다.¹⁶⁾

美國의 두 宣敎師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의 正式 入國이 1885年이라고 하지만 前述한 벨테 브레에, 하멜, 구츠라프, 토마스 등의 來到는 意識的인 宣敎를 目的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 나라에 改新敎의 呼吸을 뿌린 흔적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改新敎의 바탕이 한국 땅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不毛地와 같은 이 땅에 宣敎의 自由가 許容되지 敎勢는 燎原의 불길처럼 퍼져 나갔으니 實로 이 때부터 우리 나라 基督教 歷史의 새로운 方向이 提示되었다고 하겠다.

改新敎가 들어온 후 이미 들어와 뿌리를 박고 있던 天主教를 제쳐 놓고 빠른 속도로 그 敎勢를 全國的으로 擴張시키는데에는 勿論 開拓 宣敎師들의 犧牲的인 精神과 이를 뒷받침하던 初期 敎人들의 열렬한 信仰心과 傳道熱에 그 重要한 原因이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輕視할 수 없는 理由는 天主教가 가지고 있지 않은 讚頌歌라는 그 敎理 傳達의 媒介體를 가지고 있는 點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⁷⁾

(B) 敎 育

宣敎의 手段으로 學校를 設立하여 敎育과 傳道를 並行하는 方法을 擇한 宣敎師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敎育事業을, 스크랜틴과 알렌은 醫療事業을 통하여 積極的인 宣敎를 始作한다.

宣敎師들의 來韓에 앞서 우리 나라에 近代式 學校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즉 1883년에 韓國皇室의 外交顧問官으로 와 있던 獨逸人 뮐렌도르프(Möllendorf)가 設立한 通辨學校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學校는 時勢에 의한 艱박한 要求에서 語學을 가르치기 위한 政府의 通譯官 養成이 目的이었지 무슨 英才를 養成한다거나 文化向上을 꾀하려던 것

16) 李有善, 前揭書, p.21.

17) 閔元得, 前揭書, p.14.

이 아니어서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아 버리게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政府의 主管으로 문을 연 育英公院은 1886년에 設立되어 貴族이나 兩班階級の 子弟들을 入學시켜 英語를 위주로 교수하다가 1894年 甲午更張과 함께 廢止되고 말았다.¹⁸⁾

이와 같은 몇 개의 近代式 學校의 設立은 教育의 趣旨나 目的에 있어서도 眞正한 意味의 近代式 教育으로서의 意義를 갖춘 教育의 開放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885年 아펜셀러가 設立한 培材와 스크랜턴 부인이 設立한 梨花는 當時의 韓國 사람에게는 理解하기 어려운 存在가 아닐 수 없었다. 이 學校들은 基督教人을 만드는 일과 人材를 養成하는 것으로 그 教育目標을 삼고 있었으며, 그 教科의 內容으로는 人文, 社會, 科學 等 前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學問임은 勿論 男子들의 教育機關인 培材에서는 스포츠를, 그리고 女學校인 梨花에서는 音樂을 紹介하는 일에 본을 보여 新文化 運動의 先頭에 나섰던 것이다.

基督教의 博愛主義思想과 平等主義는 그 教育도 平民이나 오히려 不幸한 孤兒나 貧民의 子弟를 對象으로 그 첫 出發을 꾀하였으니 이 事實은 當時의 實情으로는 怪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새 教育에 대한 理解를 確立하기까지에는 상당한 時日과 努力이 所要 되었던 것이다.¹⁹⁾

3. 西洋音樂의 導入

1) 洋樂導入의 두 개의 經路

(A) 宣敎의 目的으로 導入된 洋樂

基督教 音樂은 讚頌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곧 西洋音樂에 대한 最初의 接觸을 意味한다.

더 根源的인 西洋音樂의 流入은 멀리 三國時代의 공후(箜篌)같은 樂器가 古代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하아프系의 樂器이며, 장구나 피리와 같은 것은 西域에서 들어온 것이며, 西洋의 樂器인 洋琴은 오랜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음악을 연주하게끔 同化되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國樂器 行세를 하게 되었다.²⁰⁾

美國의 基督教 宣敎師가 1885년에 이 땅에 들어오자 新學問을 가르치기 위하여 教育機關을 設立했다함은 이미 前述하였거니와 改新敎의 宣敎와 더불어 讚頌歌와 音樂敎育이 並行되기 始作되므로 韓國音樂史는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文子 그대로 劃期的인 事實로 印度音樂이 佛敎에 따라 들어왔으며, 中國 雅樂이 儒敎에 따라 들어왔듯이 西洋音樂이 基督教에 따라 들어오자 이것은 急速度로 發達하여 在來의 國樂을 壓倒하게 된 것이다.

基督教의 讚頌歌는 會衆이 함께 부름으로 해서 禮拜儀式에 參禮하는 것이기 때문에 敎會

18) 上揭書, p.23.

19) 柳德熙, 前揭書, p.427.

20) 李有善, 前揭書, p.30.

에서 연주되는音樂은 누구에게나 親近感和 比喩한 感化力을 가지고 있으므로 初創期의 基督教은 類例없이 빠른 速度로 全國에 퍼져 나갔는데 이것은 開拓 宣教師들의 희생적인 宣敎精神과 아울러 새로운 思潮에 敏感하지 않을 수 없었던 時代相과 또한 다른 宗教가 가지고 있지 않은 <讚頌歌>를 그 敎理傳達의 媒介物로 가지고 있었다는 點이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讚頌歌는 基督教 敎會音樂의 重要한 一部이기는 하지만 그 全部는 아니다. 例컨대 바하(J. S. Bach)의 敎會칸타타(Cantata), 受難曲, 모테트(Motet) 등의 敎會 合唱音樂이라든가 코랄(Choral)의 멜로디에 의하여 作曲된 오르간 코랄(Organ Choral) 등이 讚頌歌와 함께 우리들에게 紹介되었더라면 높은 藝術的 價値를 가지는 이러한 聲樂曲, 器樂曲은 韓國 音樂文化를 世界 音樂史의인 關聯에서 빠른 時日에 飛躍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²¹⁾

누구에게나 親近感을 주고 感化力을 가졌으며 宣敎의 媒介 역할을 한 이 讚頌歌에서 우리의 洋樂敎育이 빠르게 되는 것이다.

(B) 에케르트와 軍樂隊

우리 나라의 洋樂導入과 音樂敎育의 形成過程에는 主流를 이룩한 前記한 宣敎의 目的의 洋樂導入 以外에 또 하나의 다른 形態의 音樂이 뒤따르고 있었으니 그것이 곧 舊 大韓帝國 政府의 勅令으로 導入된 西洋式의 軍樂隊이다.

1896年 러시아 皇帝 니콜라이 2世의 載冠式에 參禮했던 閔泳煥은 歸路에 歐美 여러 나라의 文物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高宗皇帝에게 開化의 促進을 꾀하고 軍隊의 사기 양양이라는 理由로 在來式 軍樂隊를 廢하고 西洋式 軍樂隊 創設의 긴급성의 奏請이 嘉納되어 當時 宮內部 高文觀으로 있던 美國人과 總稅務司로 있던 英國人 박 탁안(拍卓安)에게 그 見積 및 具體的인 계획을 작성케 하여 光武 4年에 그 實現을 보게 된 것이 1900年이었던 것이다.

한편 皇城新聞은 1900年 12월 24日字에 官報 勅令 第59號(軍樂隊 設置 件)의 官報를 引用한 軍樂隊 創設을 보도 하였으나 增補文獻備考 中の 樂考, 職官考, 兵考 等에는 軍樂隊 創設 年代가 同一年度로 되어 있지 않음을 張師助는 「黎明의 東西音樂」에서, 李有善은 「韓國 洋樂 百年史」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增補文獻備考 卷 110 兵考 2에는 高宗 33年 設 軍樂 2隊

② 增補文獻備考 卷 110 兵考 2 還制에는 光武 2年 設 軍樂 2隊

③ 同上卷 283 職官考에는 今上 光武 4年 設 軍樂隊라고 되어 있어, 高宗 33年(1896年), 光武 2年(1898年), 光武 4年(1900年)으로 되어 있으나 이 西洋式 軍樂隊가 獨逸人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에 의하여 創設된 것을 전제로 할 때 그의 초빙에 관한 諸記錄으로 보아 前記 軍樂隊의 創設 公布는 光武 4年(1900年)이고 그 이듬해인 1901년에 發足했음이 확실하다고 述하고 있다.²²⁾

韓國 初有의 洋式 軍樂隊를 指導하러 來韓한 에케르트는 1852年 獨逸 실레지아 州의 法官의 아들로 태어나 <브레스라우>와 <드레스덴>의 音樂 學校를 卒業하고, 陸軍 軍樂隊에서 兵役義務를 마치고 海軍樂長으로서 그의 音樂敎育의 生涯를 始作하였는데 1879年(28歲)에는 日本 海軍 軍樂隊의 敎師로 雇聘되어 2個年 契約으로 日本에 와서 日本 國歌制定에 따

21) 金晉均, '基督教 讚頌歌가 韓國音樂文化에 미친 影響'(啓明大 東西文化, 1967) p.98.

22) 李有善, 前掲書, p.69.

큰 吹奏樂 編曲을 爲始하여 日本 音樂界에 多大한 貢獻을 하게 되자 最初의 契約 期限은 延期에 延期을 거듭하여 1899년까지 約 20餘年間 日本에 머물러 있으면서 陸海軍의 밴드 指導는 勿論 音樂取調所의 教師로 또는 宮內省 雅樂課 勤務 등으로 눈부신 活躍을 하였다.²³⁾

1900年 初 本國으로 돌아가서는 獨逸皇帝로부터 王室樂長의 稱號를 받아 그의 海外에서의 功이 높이 評價되던 중 韓國의 초청을 받고 來韓하게 되었다.

그가 훌륭한 音樂家였다는 것은 그가 받은 教育이나 音樂活動을 보아도 充分히 알 수 있는 일이지니와 그는 또한 우리 나라 音樂文化史에서 잊을 수 없는 音樂教育家였던 것이다.

軍樂隊 隊員으로는 全國의 各聯隊의 曲號手中에서 入選하였으며 에케르트의 철저한 訓練과 練習, 그리고 政府의 意慾의인 뒷받침으로 短時日內에 놀랄만큼 成功的 演奏를 할 수 있다는 讚辭가 당시의 皇城日報과 英文雜誌인 「The Korea Review」²⁴⁾ 등에 記事化되어 있다.

에케르트가 길러낸 軍樂隊 隊員이 바로 韓國 最初의 音樂徒들이며 우리 나라 音樂文化의 先驅者들이며 音樂教育의 蠟燭의 殘燭이 된 人材들이었다.

初期의 隊員中 鄭士仁(Piccolo, Flute奏者)은 同樂隊 解散後 開城의 松都高等普通學校를 비롯하여 여러 學校에서 音樂理論 및 樂隊를 組織 指導하였으며 여러편의 작품도 남기고 있는 우리 音樂教育界의 功勞者이며, 또한 白禹鏞은 德語學校 出身으로 最初에는 에케르트의 통역으로 軍樂隊에 들었으나 나중에는 軍樂隊의 樂士로 副指揮者로 그리고 軍樂長으로 活躍했으며 大部分의 隊員들은 午前에는 授業을 마치고 午後에는 자기 자기의 專攻樂器 練習에 몰두하였다.²⁵⁾

에케르트가 實施한 철저한 獨逸式 音樂教育은 그 樂隊의 組織이나 樂器編成에 미치고 있는데 그 演奏曲目에 있어서는 世界 各國 國歌를 비롯하여 各國 民謠 및 樂曲들에 걸쳐 當時의 밴드가 演奏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거의 다 갖추고 있었다.

1901년에 來韓한 音樂專門家인 에케르트는 當初에 약속한 3年 契約이 연기 되었음은 물론 韓末의 어려운 風雲 속에서도 音樂同好人들과 苦樂을 함께 하면서 韓日合併과 함께 名稱조차도 李王職 洋樂隊라고 불리워지던 軍樂隊가 드디어 解散의 悲運을 당할 때까지 이 樂隊와 그 弟子들, 그리고 그의 後繼者들을 지켜왔던 것이다.

1916年 會賢洞 自宅에서 胃癌으로 生을 마칠 때까지 15年 동안 그가 이 나라 音樂界에 끼친 功績은 實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²⁶⁾

閔元得은 「開化期の 音樂教育」에서 에케르트의 軍樂隊 創設에 대하여 첫째, 西洋樂器의 多量輸入(宣教師들에 의하여 오르간, 바이올린 등 수입이 있었음).

둘째, 本格的인 音樂教育이 音樂專攻 教師에 의하여 始作되어 音樂人 養成教育의 嚆矢가 되었으며(역시 宣敎界 學校에서 讚頌歌(讚美歌)를 가르치기 위한 音樂教育이 實施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셋째, 社會的인 音樂教育이 學校教育이 아닌 色다른 方法에 의한 大衆의 音樂文化에 대한

23) 閔元得, 前掲書, pp.53~4.

24) 閔元得, 前掲書, p.54.

25) 上掲書, p.55.

26) 閔元得, 前掲書, p.55~6.

認識을 새롭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⁷⁾

에케르트의 軍樂隊 創設이야말로 洋樂의 理論 및 器樂教育의 새로운 章이며, 本格的인 訓練을 받은 隊員들은 各 中學校의 音樂教師로서 學校 브라스 밴드 組織을 促求하기도 하였으므로 에케르트의 軍樂隊 創設 및 그의 音樂教育은 前章의 宣敎의 目的으로 導入된 洋樂과 比肩되는 洋樂導入 및 音樂教育의 쌍벽으로 두 개의 經路라 하겠다.

2) 讚頌歌와 唱歌

基督教 讚頌歌는 처음 讚揚歌, 讚聖詩 혹은 讚美歌라고 불리워졌고 聖潔教會에서는 福音歌 또는 復興歌라 했고 救世軍에서는 軍歌라는 이름으로 모두 하느님을 讚頌하는 것과 敎理傳道가 그 大意로 使用되었다.

1931년 아펜셀러 편집으로 된 讚頌歌 序文에 의하면 ‘福音歌가 朝鮮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1893년경에 언더우드 박사가 발행한 讚揚歌와 1896년에 美 監理派의 讚美歌와 1897년에 北長老派에서 발행한 讚聖歌였으며...’²⁸⁾라고 되어 있음은 1893년 이전에 韓國의 各教會에서는 讚頌歌를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韓國에 있어서의 讚頌歌 즉 初期 形態의 西洋音樂은 改新敎의 傳敎와 거의 때를 같이했던 것으로 西洋音樂의 始作은 改新敎의 宣敎를 基點으로 하는 1980年代 初부터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1893년 언더우드 博士의 讚揚歌 發行以來 1908년에는 그 發行部數가 6萬部, 1910년에는 25萬餘部로 22年間 43回の 増版을 통하여 總 發行部數가 87萬餘部나 된다고 하는 統計는 ‘우리의 글’을 많은 民衆에 普及시켜 文化向上에 이바지 하였으며 1886년에 設立된 梨花學堂에서도 ‘처음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과 “예수 사랑하심은”의 讚頌歌를 영어로 배우며 예배를 보는 것이다’²⁹⁾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韓國에 있어서의 西洋音樂史의 出發을 讚頌歌에서 始作하는 意義는 充分하며 讚頌歌는 教會內의 禮拜儀式으로서만이 아니라 唱歌運動과 新文學(특히 新詩) 運動의 母體가 되고 있다.

한편 唱歌라는 語彙 속에는 文學的 要素를 가지고 있는 ‘글로된 歌詞와 音樂的 要素를 지니고 있는 歌唱 對象의 노래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現在는 ‘노래를 부른다’는 뜻으로 ‘唱歌를 하라’고 하여 唱歌가 이 두 가지 要素 中에서 音曲을 並行한 노래의 뜻이 더 一般에게 보편화 되었다.

唱歌라는 낱말의 由來는 多少 導入年代나 使用年代의 差는 있으나 日本에서 渡來한 것에 一致한다.

1896년에 創刊된 獨立新聞에 掲載된 歌詞들이 모두 獨立歌, 愛國歌, 歡學歌, 同心歌 등으로 불리우고 있어도 唱歌라는 表記는 찾아볼 수 없다.

日本에서 唱歌라는 用語가 本格的으로 使用되기는 1872年(明治 5年) 最初로 學制를 頒布할 때 和蘭의 學制를 模倣하면서 그 教科目 中에 唱歌라는 科目이 包含된 데서부터라고 한

27) 上揭書, p.57.

28) 金晉均, 前揭書, pp.94~6.

29) 鄭忠良, 「梨花八十年史」(梨花女子大學校, 1967), p.37.

다.³⁰⁾ 그러나 日本에서는 이 學制가 頒布되기 전부터 改新敎의 傳來에 의한 讚美歌와 이에 뒤따른 軍樂 또는 演歌라는 形態의 노래들이 이미 一般 民衆속에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記錄上으로 나타난 唱歌라는 語彙는 增補文獻備考에는 光武 4 年(1900 年) 設軍樂欄(樂考 14)에 各國의 樂曲名을 列擧한 中에 ‘…吊禮行進曲, 騎兵行進曲, 唱歌行進曲…’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唱歌라는 말의 첫 出現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同年 3 月 8 日 皇城新聞에는

‘教師 渡瀬常吉氏가 告辭하고 來濱 中學部協辦 李載崑氏와 日本公使 林權相氏가 卒業生의 前進祝賀와 諸生徒의 勸學 勸勉으로 演說하매…(中略)…諸氏가 答辭하고 諸生徒가 齊聲 齊唱歌한 後에 體操場으로 進하여 兵式體操와 諸般競走로 餘興을 畢하고……’

여기 소리를 같이 하여(齊聲) 일제히 노래(齊唱歌)를 하였다고 하는 記事에서 唱歌라는 語句를 發見한다.³¹⁾

唱歌라는 말은 日本에서 新敎育令이 發布되던 해인 1879 年에 音樂取調所라는 音樂敎育指導機關이 創設되고, 2 年 後인 1881 年(宣敎師의 來韓이 있기 4 年前) 日本 文部省에서 「小學唱歌集」이라는 음악책을 펴내면서 노래를 唱歌라는 名으로 表現하기 始作한 것이다.³²⁾ 한국에서는 1886 年 韓國 最初의 新敎育機關인 培材學堂에서 ‘唱歌’ 時間이 設定되어 있었으며 培材보다 4, 5 年 늦게 設立된 仁川의 永化學校(Mrs. G. H. Jones 設立)에서도 唱歌가 敎科目이었으나 주로 讚美歌를 번역하여 가르치고 있었음을 培材史나 永化 70 年史의 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唱歌라는 새로운 樣式의 音樂的 表現方法은 우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平易性을 가졌다는 點과 또한 그 音域이나 리듬, 旋律이 모두 大衆性을 지녔다는 點에서 빠른 速度로 전파 보급되었으며 唱歌를 부르는데 特別한 音樂的 技巧가 要求되지 않는다는 것과 曲이 길지 않기 때문에 樂譜가 없이도 쉽사리 口傳으로도 외어 부를 수 있다는 점, 또한 音樂의 旋律의 構成이 單純하며 同一한 리듬 節의 樂句가 反復된다는 點 등의 特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語彙는 日本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唱歌’의 本質的인 問題는 이것과는 전혀 關聯없이 讚頌歌에서 비롯하여 그 時代 風潮와 民族의 感情을 表現하는, 말하자면 愛國的인 同時에 排日思潮의 表現方途로 쓰여졌다고 하는 點을 銘記해야 할 것이다.

學校와 社會音樂으로서의 唱歌는 聲樂으로 한 갈래를 지어 뻗어나갔으며, 한편 1900 年에 創設을 본 軍樂隊는 器樂으로, 이렇게 開化期의 우리 音樂은 두 갈래로 發展하고 있었으니 1904 年 學制改編 以後의 敎科課程에는 어엿이 ‘唱歌’가 敎科目으로 設定되게 되었던 것이다.

30) 日本敎育音樂協會編, 「本邦音樂敎育史」(東京, 1938), pp.53~4.

31) 閔元得, 前掲書, p.42.

32) 李有善, 前掲書, p.33.

4. 音樂教育의 定立

1) 學校設立과 音樂教育

韓國에서 一般教育을 目的으로 하는 現代式 學校는 美國 宣教師들이 傳道事業으로 教育에 着手하여 세운 培材學堂, 梨花學堂과 政府가 美國으로부터 招聘하여 設立한 育英公院이 嚆矢가 된다.

培材學堂은 美國의 監理敎에서 파견한 宣敎師 아펜셀러가 1885년에 西小門洞에 집 한 채를 사서 두명의 學生으로 開校하였으며, 그 이듬해에 67명으로 증가하여 1887년에는 벽돌로 지은 校舍가 完成되었으며 이 해 高宗이 親히 <培材學堂>이라는 校名을 하사하게 된다.

아펜셀러가 韓國의 男性教育을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에 美國監理敎의 女子宣敎師 스크랜턴 부인(Mrs. M. F. Scranton)은 宣敎事業의 重要한 分野의 하나로서 女性을 위한 教育機關 設立에 着手하여 來韓 이듬해인 1886年 5월에 學生 한 명으로 學校를 始作하니 이것이 閔妃가 이름한 <梨花學堂>이다.³³⁾ 學校를 設立한 지 3년이 되는 1888년에 學生數 겨우 18名에 不過했다 함은 初期의 女性教育이 男性教育보다 많은 難關을 겪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이와 같이 美國 宣敎師들에 의하여 現代式 教育機關이 設立될 무렵 政府로서도 西洋文化를 받아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現代式 學校의 設立을 서둘러 1886년에 育英公院을 세우게 된다.

韓美修好條約 締結後 報聘大使로 美國에 갔던 閔泳翊의 學校設立의 제의를 받은 高宗은 美國政府에 敎師要請을 하여 유니온 神學校 學生이던 길모어, 벅커어, 헐버어트에 의하여 學業을 開始하였을 때의 最初의 學生은 貴族의 子弟들이었다.

前記한 바와 같이 1885년부터 1909年 사이의 宣敎系 學校 40個校와 1883년의 通辨學校를 비롯하여 1908년까지의 官・私立學校 21個校의 設立으로 22年間に 京鄕 各地에 60餘 學校가 設立된 것은 모두 開化에 따른 新敎育의 時急함을 認識한 때문이었다.

韓國에 있어서의 音樂敎育은 學校敎育이나 正規 敎科課程으로서 보다는 오히려 改新基督敎會를 中心으로 始作되었으니 一種의 社會敎育의 形式으로 出發한 것이다.

京鄕 各地의 公・私立學校의 學生들의 입장에선 愛國歌와 獨立歌가 힘차게 불리워지고 한편 軍樂隊에서는 政府나 公共의 行事 때마다 大衆에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耳目을 즐겁게 하여 줌으로 民衆속에 音樂의 씨를 뿌렸으며 高宗의 音樂振興을 위한 關心 表明의 한 例로 ‘音樂을 文臣中으로 撰定하라’ 함에 있어서 ‘音樂’이라함은 곧 國歌를 意味함이며, 이로 인하여 撰定된 國歌가 곧 <上帝는 우리 皇帝를 도우소서>로서(God Save Our King)의 英國國歌를 본떠서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國王의 命을 받들어 文官中에서 지은 國歌의 歌詞는 1904年 軍樂隊 指導者 에케르트에 의하여 作曲되어³⁴⁾ 當時 盛行했던 여러 가지로 불리었던 愛國歌를 統一할 의도로 國歌制定을 보았으며, 忠國의 念을 본보인 閔忠正公 殉國後에 지어져 民族的 울분이 烈士의 죽음을 主題로 하여 다루어졌다는 ‘슬프도다 슬프도다 우리 國

33) 元裕漢, 尹炳奭 共著, 前掲書, p.186.

34) 閔元得, 前掲書, pp.49~50.

民 슬프도다……’라는 血竹歌도 愛國歌나 獨立歌와 同一한 性格으로 보아야 하며, 잃어버린 國權을 悲嘆할 것이 아니라 主權을 되찾고 나라를 復興시키는 데에는 來日의 主人公들에게 修學을 권장하여 有能한 人材를 만들어야 한다는 ‘少年은 易老하고 學難成하니 一寸의 光陰인들 不可輕이라’의 勸學歌, 學徒歌, 學問歌, 公德歌 등이 新學問을 널리 배워 나라와 民族에 有用한 人物이 되기를 勸勵하는 노래들이 불리워졌다.³⁵⁾

이미 宣敎系 學校에서는 讚頌歌를 爲始한 많은 노래들이 音樂의 素養이 있는 教師에 의하여 比較的 正常的인 授業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音樂의 背景의 狀態에서 強要된 學制의 修正으로 「臨時學事擴張」이라는 名目下에 1895년에 發布한 小學校令은 廢止하고 <普通學校令>이라고 修正한 후 教育刷新政策에 따라 統一性 있고 內容充實한 教育을 위하여 各 官立學校에 日本人 教師를 招聘할 것을 示唆했다. 또 1906년에 發布된 學部令을 보면

普通學校令 施行規則

第1章……………

第2章……………

第10條 普通學校 各 學年의 教科課程 及 每週 教授時間數는 第1號 表에 의함이라.

唱歌, 手工, 農業, 商業의 1科目 혹은 數科目을 加할 때에는 學校長은 每週 教授時間數를 32時間까지 增加함을 得하되 尙具 不足할 境遇에는 他教科目的 每週時間 中에서 4時間以內를 減하여 時間表를 配定하여 文部大臣에게 報告함이라.

이러한 教育計劃 아래 配定된 教科時間中 비로소 登場하게 된 <唱歌>라는 科目의 位置를 살피면

普通學校 各 學年 教科課程 及 每週 教授時間表³⁶⁾

教科目	時間	第一學年	時間	第二學年	時間	第三學年	時間	第四學年
修身	1	人道實踐의 方法	1	同 上	1	同 上	1	同 上
國語	6	日常須知의 文學, 普通文의 書法, 讀法, 作文	6	〃	6	〃	6	〃
漢文	4	簡易한 漢字, 漢文	4	〃	4	〃	4	〃
日語	6	會話 及 日語文의 讀法・書法・作法	6	〃	6	〃	6	〃

35) 閔元得, 前掲書, pp.51~2.

36) 官報 第3549號 光武10年(1906) 4月 4日, 學部令 第23號.

教科目	時間	第一學年	時間	第二學年	時間	第三學年	時間	第四學年
算 術	6	計算・書法・ 通常 加減乘法	6	通常 加減乘除	6	通常, 加減乘除 小數의 呼法・ 書法・其他	6	〃
地 理 歷 史	2	本國歷史, 地 理大要	2	〃	2	本國歷史・本 國及 外國 地 理의 大要	2	〃
理 科						動植物 及 自 然의 現象		
圖 畫	2	簡易한 諸般物 體	2	〃	2	〃	2	〃
操 遊	3	遊戲 普通體操	3	〃	3	〃	3	〃
手 藝		連金十法・編 織・刺繡		通常衣類의 縫法, 補綴法				
唱 歌		單音唱歌		〃		〃		
手 工								
農 業						農業의 大要		
商 業						商業의 大要		
計	30		30		30		30	

改編된 時間表에는 最初로 唱歌科目이 添設되어 활기를 띠우며 「唱歌는 平易한 歌曲을 唱케 하여 美感을 養하고 德性의 涵養을 資함으로 要旨함이라 歌詞 및 樂譜는 平易雅正하야 理解키 易하고 且 心情을 快活純美케 할 것을 選함이라」³⁷⁾ 이러한 條文으로 歌詞의 內容이나 樂曲도 普通學校의 兒童으로도 理解할 수 있는 쉬운 것으로 택하도록 못박고 있다.

1906年 普通學校 規則이 發表는 되었지만 唱歌教科書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明白하며 1910年 學部編纂 普通教育唱歌集이 나올 때까지는 一定한 教科書 같은 것은 없고 學徒歌나 愛國歌, 또는 運動歌 等이 그것도 어쩌다가 가르치는 學校에서 間歇의으로 노래되었다.

1906年 勅令 第41號로 公布된 師範學校令에 의하면 師範學校는 ‘普通學校 敎員될 者를 기르는 것으로서 目的함(第1條)’이라 하였으며 施行規則中에는 다음과 같은 各 科目의 設定을 볼 수 있는데 音樂科目에 대한 但書가 이채롭다.

師範學校令 施行規則

第 章 總 則

.....略.....

第二章 學科目 及 要旨

第5條 師範學校 本科의 學科目은 修身, 教育, 國語, 漢文, 日語, 歷史, 地理, 數學, 物

37) 李有善, 前掲書, p.83.

理，化學，博物，圖畫，音樂，體操로 합이라.

但，音樂은 現今間 闕함을 得함이라.

이 師範學校의 音樂教育이 普通學校의 音樂教育의 貧困相을 證明하고 있으며 그 學科課程 및 時間配定表를 살펴보면

師範學校 本科學科課程 及 每週 授業時間表³⁸⁾

學年	1 學 年		2 學 年		3 學 年	
學科目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修 身	1	人倫道德의 요령	1	人倫道德의 요령	1	人倫道德의 요령
教 育	3	原理・心理論理의 요령	3	前學年の 계속, 교수원리	3	前半－教育法令 학교관리 後半－실지교수
國 語	3	講讀, 文法, 作文, 習字	3	講讀, 文法, 作文, 習字	3	講讀, 文法, 作文, 習字
漢 文	3	講 讀	3	講 讀	3	講 讀
日 語	4	讀法, 解釋, 會話, 習字	4	讀法, 解釋, 文法, 會話	4	讀法, 解釋, 文法, 會話
歷 史	2	本國史	2	外國史	2	外國史
地 理	2	本國 地理, 地圖 描法	2	外國 地理, 地圖 描法	2	前學年 계속, 地文 대요
數 學	3	整數, 分數, 小數	3	前學年 계속, 比例 百分 等	4	代數 幾何의 初步
物理化學	2	物 理	2	物理, 化學	3	化 學
博 物	2	人身生理, 植物, 動物	2	植物, 動物		
圖 書	2	自在畫	2	自在畫	2	自在 及 用器畫
體 操	3	보통, 兵式	3	보통, 兵式	3	보통, 兵式
音 樂	2	單音唱歌	2	單音唱歌, 樂器 使用法	2	單音唱歌, 樂器 使用法
農 業	(2)	農事大要	(2)	農事大要, 水産 大要	(2)	農事大要, 水産 大要
商 業	(2)	大 要	(2)	大 要	(2)	大 要
手 工	(2)	木, 竹, 竹細工	(2)	木, 竹, 竹細工	(2)	木, 竹, 竹細工 및 粘土細工 大要
計	34		34		30~34	

38) 李宥善, 前掲書, p.85.

위의 授業時間表에 의하면 適當 2時間을 配定하고 있으나 '但, 音樂은 現今間 闕함을 得함 이라'로 비추어, 또는 教科書의 未整備나 樂器使用法을 教授할만한 音樂教師나 樂器가 마련되지 않은 點으로 보아 音樂의 正常授業이 이루어지기를 期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實情은 高等學校에서도 같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

다음은 「師範學校令 施行規則」과 같이 公布된 「高等 (女)學校令 施行規則」의 一部인데 音樂에 대한 것은 前記 師範學校와 다름이 없다.

高等 (女)學校令 施行規則

第一章 總 則

第4條 高等學校의 本科 學科目은 修身, 國語, 漢文,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物理, 化學, 法制, 經濟, 圖畫, 音樂, 體操로 하되 但, 法制, 經濟及 音樂은 闕함을 得함이라. (以下略)

高等學校 學科目 及 每週 授業時間表³⁹⁾

學年 教科目	1 學 年		2 學 年		3 學 年		4 學 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修 身	1	實踐道德	1	實踐道德	1	實踐道德	1	實踐道德
國語及 漢 文	6	講讀, 作文, 文法, 習字	6	講讀, 作文, 文法, 習字	6	講讀, 作文, 文法	6	講讀, 作文, 文法
日 語	6	讀法, 解釋, 會話, 書取	6	讀法, 解釋, 會話, 書取, 文法, 作文	6	講讀, 作文, 文法	6	講讀, 作文, 文法
歷 史	3	本國 歷史	3	外國 歷史	3	外國 歷史		
地 理	3	本國 地理	3	外國 地理	3	外國 地理	1	地 文
數 學	6	算術, 代數	5	代數, 幾何	4	代數, 幾何, 簿記	4	幾何, 簿記
博 物	4	礦物, 植物	2	動物, 生理	2	生理, 衛生		
物理・ 化 學					3	化 學	4	化學, 物理
實 業	1	實業概設	3	農業, 商業, 工業中 1	3	農業, 商業, 工業中 1	5	農業, 商業 工業中 1
圖 畫	2	自在畫	1	自在畫	1	自在畫 及 用器畫	1	用器畫
體 操	3	學校體操	3	學校體操	2	學校體操	2	學校體操

39) 李有善, 前掲書, p.86.

學年	1 學 年		2 學 年		3 學 年		4 學 年	
教科目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法制及 經 濟							(2)	現行法制 及 經濟大要
唱 歌	(1)	單音唱歌	(1)	單音唱歌				
外國語	(2)	讀法, 解釋, 書取, 習字	(3)	讀法, 解釋, 會話, 書取	(3)	讀法, 解釋, 會話, 書取, 文法	(3)	讀法, 解釋, 會話, 書取, 文法, 作文
計	31 (3)		30 (4)		31 (3)		30 (5)	

高等女學校 本科 學科目 及 每週 授業時間表⁴⁰⁾

學年	1 學 年		2 學 年		3 學 年	
學科目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修 身	1	實踐道德	1	實踐道德	1	實踐道德
國語及 漢 文	5	講讀, 作文, 文法, 習字	4	講讀, 作文, 文法, 習字	4	講讀, 作文, 文法, 習字
日 語	5	讀法, 解釋, 會話, 書取	4	讀法, 解釋, 會話, 書取 及 作文, 文法	4	讀法, 解釋, 會話, 書取 及 作文, 文法
歷史地理	2	本國歷史, 本國地理	2	本國歷史, 本國地理 本國에 關係 있는 外國地理	1	本國에 關係 있는 外國地理 及 地文
算 術	2	整數, 分數	2	分數, 小數, 珠算	2	比例, 步合算, 珠算
理 科	2	動物, 植物, 生理 衛生	2	化學, 礦物	2	物理
家 事	1	衣食住	2	衣食住 及 養老	2	育兒, 看護, 割烹, 家事經濟
圖 畫	1	臨畫, 寫生畫	1	臨畫, 寫生畫	1	臨畫, 寫生畫 及 參考畫
裁 縫	4	運針法, 普通衣服 의 縫法, 裁法, 繕法	5	運針法, 普通衣服 의 縫法, 裁法, 繕法	5	運針法, 普通衣服 의 縫法, 裁法, 繕法 及 裁縫機械 使用 法
音 樂	2	單音唱歌	2	單音唱歌	2	單音唱歌

40) 李有善, 前掲書, p.87.

學年	1 學 年		2 學 年		3 學 年	
學科目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體 操	2	遊戲, 學校體操	2	學校體操	2	學校體操
手 藝		編物, 造花, 刺繡		編物, 造花, 刺繡		編物, 造化, 刺繡 及 袋物, 組絲
教 育						教育에 관한 事項
計	27		27		26	

高等學校에서도 名色만의 音樂時間으로 실제 利用價值가 적은 音樂教育이 輕視되어 但書가 붙어 있었으며 적어도 初等教育을 담당할 師範學校에서 音樂教育이 실시된 것은 그후의 일로 1909년에 改正公布된 師範學校令 施行規則에서 처음으로 前記 但書가 없어지게 된다.

1909年 學部令 第3號로 改正된 「師範學校令 施行規則」을 보면 다음과 같다.

…………前 略…………

第二章 學科目 及 程度

第四條 師範學校 本科의 學科目은 修身, 教育, 國語 及 化學, 圖畫, 手工, 音樂, 體操로 함⁴¹⁾

1906年代에는 이미 教科課程 規則이 施行되었음에도 不拘하고 音樂授業이란 다만 基督教系 學校의 讚頌歌와 몇몇 先覺者나 여러 學會에서 세운 私立學校에서 愛國歌, 少年男子歌, 父母恩德歌, 學徒歌 등이 불리워졌으며 學校別 音樂 教科課程을 비교하여 보면, 四個學校 施行規則이 같은 年度인 光武 10年(1906年) 4月과 9月에 發布되었으나 教科目名이 唱歌가 音樂으로 明記되었다거나 初等教育機關인 普通學校의 時數의 不明示, 師範學校 2,3學年을 除外하곤 教科程度가 一律적으로 單音唱歌로 되어 있는 點, 格外 高等學校와 高等女學校의 配定時數의 大差 등은 音樂教育의 導入過程上으로 보아 比重높은 課題일 것이라고 못을 박아 둔다.

이러한 音樂教育의 기틀이 記錄上으로는 제법 形態가 잡혀 있음에도 不拘하고 실제로 이것이 어느 程度의 教育의 効能을 발휘하였느냐 하는 點에 있어서는 極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어떠한 音樂教育의 目標樹立이나 教科課程이 그대로 所期하는 音樂의 成就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例컨대 普通學校나 師範學校의 音樂教育의 必然性이 體系적으로 要請되었음에 견주어 高等學校의 그것은 極히 皮相的이었으며 아울러 ‘唱歌를 闕하여도 좋음’ 程度에 놓여 있었음에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多幸하게도 高等女學校는 대단히 刮目할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같은 程度의 教育에서 男學校에 비하여 女學校에서는 보다 많은 音樂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41) 李有善, 前揭書, p.87.

첫째, 本科와 豫科에 適當 2時間씩의 音樂時間이 配定되어 있다는 點(男學校의 1時間에 比하여)

둘째, 男學校에는 없는 3學年(卒業學年)에도 唱歌時間이 있다는 點, 아울러 이 最高學年에서 複音唱歌와 樂器使用法까지도 가르쳤다는 것 등은 크게 記錄해야 할 것이다.

2) 最初의 洋樂教育機關

1910年 學部에서는 우리나라 最初의 「普通唱歌集」을 펴내어 音樂教育의 本格的인 첫 걸음을 내디딘 것과 매를 같이 하여 이 나라에는 最初의 音樂教育機關이 民間의 손으로 創設되었으니 이 母體가 곧 〈調陽俱樂部〉인 것이다.

國樂을 研究 保存하기 위한 最初의 機關은 1905년에 創設된 〈朝鮮正樂院〉이지만 洋樂을 教育하려는 뜻으로 組織한 最初의 機關인 〈調陽俱樂部〉는 1909年 9월에 發起會를 통하여 ‘舊歌樂을 傳習하여 新樂을 發展하기로 起源한다.’하여 傳來의 國樂을 主流로 하던 機關에서 소위 西洋에서 들어온 新樂은 風琴, 四絃琴 및 音樂理論을 곁들여 가르치기로 했다고 그 創立의 意義를 밝히고 있으며 音樂生活의 첫걸음을 다짐하고 있다.

1910年 3月の 調陽俱樂部의 任員選定 記錄에 의하면 總裁에 永宣君 李俊鎔, 副總裁에 俞吉澹, 其外 우리 나라 國樂界 元老인 洪肯燮 河圭一 등이 中心人物들이며, 教職員 名單에는 明完壁(가야금), 咸和鎭(가야금) 등 當代的 名人들로 그 陣容도 國樂界 人士를 總網羅하고 있는데 比하여 西洋樂科에는 오직 金仁湜 한 사람 뿐으로 選定되어 있다. 그것은 調陽俱樂部가 始初부터 國樂을 爲主로 한 機關이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겠으나 그 보다는 西洋音樂을 가르칠 教師가 될만한 人物이 稀貴했던 탓이라고 하겠다.⁴²⁾

이 때 洋樂科에는 樂理, 聲樂, 風琴, 四絃琴의 여러 科가 있었으며 定員數는 50名으로 되어 있었으나 初期에는 27名으로 始作되었다.

調陽俱樂部가 〈朝鮮正樂傳習所〉로 改稱된 것이 1912年으로 되어 있으며 第1回 卒業生은 1912年 3월에 輩出し켰다 함은 1回 入學生이 調陽俱樂部에 入學된 後 朝鮮正樂傳習所로 卒業된 것인지 아니면 卒業時도 調陽俱樂部 第1回 卒業으로 明示된 것인지는 不分明한 것이다.⁴³⁾

또 正樂維持會라는 後援會의 組織이 1911年 2月이라고 하니 後員會의 名稱으로 보아 朝鮮正樂傳習所를 위한 後援會로 前提하고 보면 改稱年度인 1912年이 問題視 되겠다.

正樂維持會 發起人 名單에 李俊公, 朴泳孝, 尹澤榮, 尹德榮, 俞吉澹 등 名門의 有志들이며 前記한 海外의 文物을 「西遊見聞記」로 紹介한 俞吉澹의 이름이 보이는 것은 開花期的 音樂教育 形成에 當然한 布石人物인 듯하다.⁴⁴⁾

아래에 卒業生을 紹介하면,

第1回 卒業生(1912年 3月)

西洋樂(聲樂科)……河大泓, 安鍾健, 崔庸煥, 印昌燮, 韓崙源, 李昌鎬, 韓鎭九, 閔泳進

42) 閔元得, 前掲書, pp.93~4.

43) 上掲書, pp.94~5.

44) 閔元得, 前掲書, p.95.

(樂理科)……咸和鎭, 金宣均, 韓圭祐, 白潤琦, 白宗聖

第2回卒業生(1913年)中에는 李尙俊이 朝鮮樂科 歌曲唱을 修了하였고 風琴科에 廉光燮, 四絃琴科에 河大泓이며 聲樂科에는 洪永厚를 위시한 4人的 名單이 보인다.

여기 우리 나라 初期 音樂教育의 功勞者인 李尙俊이 朝鮮樂科를 나오고 있으며 第1回 聲樂科를 卒業한 河大泓은 다시 風琴科를 그리고 第2回 聲樂科를 卒業한 洪永厚는 다시 3回 卒業式에 四絃琴科를 卒業하고 있다. 이것은 本所 學則에 器樂科 志望은 本所의 聲樂科 卒業生이거나 音樂理論에 相當한 知識이 있어야 한다는 條件 때문인 것이다.⁴⁵⁾

朝鮮正樂傳習所는 우리 나라 開化期의 音樂教育에서 至寶的인 存在였던 金仁湜의 音樂經歷을 쌓기 始作한 教育道場이었으며 音樂 半世紀의 별이었던 洪永厚(蘭坡)와 音樂教育界의 巨星이었던 李尙俊을 길러낸 곳이며⁴⁶⁾, 韓國 最初의 民間 音樂專門教育機關인 本 傳習所는 1915年 初 金仁湜의 退職後 洪蘭坡가 그 자리를 繼承하여 3年間 教授했으며 傳習所에 내리던 李王職의 補助金도 中斷되고, 所長 韓錫振의 別世, 日帝의 政治的 策動 등으로 그 活動이 衰退하여 1918年에 門을 永久히 닫고 말았다.⁴⁷⁾

調陽俱樂部에서 始作된 最初의 音樂教育機關〈朝鮮正樂傳習所〉는 1909年에 發起, 1910年에 議決하여 2年 後인 1912年 1回 卒業生을 輩出하면서부터 1918年에 閉所되나 에케르트에 의한 軍樂隊 創設이 1901年(光武 5年)이며 1916年에 解散하게 된 軍樂隊와의 活動年代가 비슷하나 朝鮮正樂傳習所와 軍樂隊의 有機的인 紐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傳習所 卒業生 名單에서도 軍樂隊 出身隊員을 찾을 수 없는 點은 많은 의문을 남게 한다.

音樂의 正規教育을 並行할 수 있었던 機關으로 看做되는 軍樂隊와 有機的 關連이 있었다 라면 當時 音樂教育의 進路가 달라졌을 것이며 韓國 最初의 民間 音樂專門教育機關인 〈朝鮮正樂傳習所〉는 1918年까지 계속되는 동안 그 教育理念의 이미지(Image)는 길이 우리 나라 音樂教育史와 함께 記憶되어야 할 것이다.

III. 結 論

한 나라의 文化는 固定不動한 것이 아니고 서로 交流하고 影響을 주고 받음으로서 發展되어 가는 것이다.

雅樂이나 佛教音樂이 처음 우리 나라에 傳來되어 왔을 때에는 分明히 ‘外來音樂’이었고 우리들의 것과는 異質的이었다. 그러나 오랜 時代變遷을 겪는 동안에 音樂 그 自體가 우리 生活感情에 適應되고 同化되어 오늘날 의심할 여지 없이 ‘國樂’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西洋音樂 역시 이미 ‘韓國化’ 되어 가는 느낌이 없지 않다.

1885年에서부터 1910年까지의 音樂教育의 形成과 成長期에는 대체로 韓國的 音樂의 特

45) 上揭書, p.95.

46) 上揭書, p.96.

47) 陞元得, 前揭書, p.98.

殊性이主張되고 있지 못하였다.

美國宣教師에 의한讚頌歌의傳來, 새로운樣式의音樂的表現方法인唱歌에로의發展은新文學(특히新詩)運動의母體를 이루었으며,唱歌가教科目으로設定되어單音唱歌에서複音唱歌로發展을 보았으며,外國의專門音樂家의초빙과洋樂器多量輸入으로軍樂隊의創設을 보았다.

1910年學部에서는 우리 最初의‘普通唱歌集’을 펴내어本格的인音樂教育을始作함과때를 같이 하여 最初의音樂教育機關인調陽俱樂部의設立을 보게된音樂教育의導入過程은19世紀末 우리 나라 開化期에導入된西洋文物의一環이었다.

光復後美軍政時의美國式民主主義教育制度의形成에서始作되어1955年教育課程은하나의形態로서制定되었다는特色으로指針이 되었으며音樂教育 또한本來目標인人間性開發과一致되는點은 좋았으나教科時間配當이 아주 적었으며,1963年의改編된教育課程에서는舊課程의非科學性을是正하고音樂的인感覺을 바탕으로 하는實際的인表現 및鑑賞에重點을 두었으며,1973年의教育課程과音樂教育은基礎學習內容의精選 및體系化和國樂의素材를強化하였다.

西洋音樂의導入이 한世紀를經過했다. 이제西洋의 모든文明을 그대로模倣할 때는 지났으며 우리民族性에 맞고 우리實情에 어울리는音樂教育에의觀念의轉換을要할 때이다.

오늘날 特別히‘國樂’ 또는‘韓國音樂’이라 지적하지 않는 한音樂이라면 으레히西洋音樂을 가리킬 程度로 그支配力은 절대적이고 결정적이다.本稿에서는 그 절대적인西洋音樂과 그音樂教育의導入過程을史的으로考察하여 진정한 우리 나라音樂教育의方向을 바로 찾아 나아가는 데는現實에 立脚한未來에 그觀點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基因하고자 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永義, 韓國現代音樂發展小考, 藝術院報, 1961.
김옥영, 한국 음악관계 문헌 해제목록, 이화여자대학교, 1975.
金晉均, 基督教讚頌歌가韓國音樂文化에 미친影響, 啓明大東西文化, 1967.
閔元得, 開化期의音樂教育, 梨大記念論文集, 1966.
朴泰俊, 教育音樂의史的考察, 崇實大學報, 1955. 7.
三珍社編, 韓國大系, 1974.
柳德熙, 世界音樂教育史, 學文社, 1983.
音樂年鑑編纂委員會, 音樂年鑑, 서울, 世光出版社, 1966.
李文根, 教會音樂, 카톨릭 청년, 1956~1957.
李有善, 韓國洋樂百年史, 中大出版局, 1976.
張師助, 黎明의東西音樂, 서울, 寶晉齋, 1974.

鄭忠良，梨花八十年史，梨花女子大學校，1967.

車錫基，基督教가 韓國音樂教育에 미친 影響，中央大 師大學報，1968.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Western Music Education

It is almost a century since Western music was first introduced into our country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during the civilized age of Korea, the late 19th century. This study aims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introductory process of Western music education into Korea.

Christianity first came into Korea when she was in her desperation of the National Ruin by Japan, in the confused and devastated political situation, and in the corruption of other existing religions. Therefore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s not a mere religious one, bu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modern Korean history.

In the early 1885, three years after the Korea-U.S Friendship Treaty (1882), the Protestant missionaries, Mr. and Mrs. Appenzeller (Henry G. Appenzeller) and Horace G. Underwood first introduced the hymn into the schools founded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the Christian doctrines and ceremonies. To teach the hymn in those religious schools marked both the starting point and the stepping-stone of the Western music education.

The first modern schools for the general education founded by American missionaries are Bae Jae (1885), Ewha Woman's School (1886), and the Public School for Gifted Children (1886 育英公院) by inviting teachers from America. Those schools were set up in the cause of planting Western culture in our land, and the hymn and the National Anthem were chanted there.

As a new method of music expression, Chang-Ga (Koreanized song) came into existence, which represented the currency and national feeling of that age. Chang-Ga took charge of developing the vocal music in Korea. In the other hand the first Western military band (1900) organized by a German, Franz Eckert, formed the basis of our instrumental music.

With the compulsory amendment of the school system (1906) in this musical background, music was adopted as a subject in each school and the music textbook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 imperative necessity for music produced "Jo-Yang Guragbu", a 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music in 1910, which ushered in a new epoch in the history of Korean music education.